

##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경북도청 방문

지난 10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대표들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장 등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이며 제2국무회의로 불리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철우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2년 10월 제19대 국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시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지방에서는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들과 조길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충남도의회 의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구청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중앙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준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전병국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에 기회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며 "교육의

### 대통령 주재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경북도청에서 열려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경상북도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민선 8기 출범 때부터 지방정부 중심의 대학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RISE사업 선정, 글로벌대학30사업 예비지정 최다 선정 등 대학 교육 진흥에 힘을 쏟고 성과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자치조직권 확충, 자치입법권 강화와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인센티브 부여, 지자체의 고등·평생교육 기능 강화, 지방주도 특구 계획 수립 방안들이 논의됐다.

게 직접 건의했으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병산서원을 찾아 지역유림들을 만나 '전통문화유산에서 찾는 지혜와 교훈'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퇴계의 서원운동 정신,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기 위한 선비정신 그리고 국민행복을 위한 인성교육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유림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청으로 이동 후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글귀를 담은 기념식수도 진행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 실현 의지를 다졌으며 도청직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현직 대통령의 경북도청 방문은 2016년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일이며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로 의미를 더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통령께서 직접 지역을 방문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은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국민들께 전명하는 일이다"라며 "대한민국이 소득 5만불 시대,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하려면 분권형 국가 운영으로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는 지방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맛도 최고! 모양도 최고! 경북도, 복숭아 신품종 '미소향' 개발

### 경북농업기술원 육성 백도 신품종 '미소향' 품종보호출원

경북북도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연구소는 당도가 높고 맛과 향이 뛰어난 최고품질 복숭아 신품종 '미소향'을 육성해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 했다. 청도복숭아연구소는 미향, 금향, 수향 등 지금까지 다수의 고품질 조생종 황도 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면서 황도 품종 육성기관으로 주목받아 왔다. 최근에는 '홍백'을 기점으로 '스위트하백', '은백', '참백' 그리고 올해 '미소향'까지 백도 품종을 잇달아 선보이며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소향'은 과중 330g, 당도 14브릭스 이상으로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 사이 수확하는 대과형 조생종 백도 품종이다. 이 시기 수확되는 대표적인 고품질 복숭아 품종인 '미백도' 품종이 있으나 과실의 무른 특성 때문에 재배와 유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개발된 '미소향'은 '미백도'만큼 당도가 높게 유지되면서 유통 저장성은 개선된 최고품질의 복숭아로 농업인, 유통인,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품종으로 기대가 크다. '미소향'은 지난 1999년 '유명'과 '일천백봉'을 인공교배해 24년간의 육성과정을 거쳐 개발한 품종으로 향후 국립종자원의 재배심사를 거쳐 품종보호



## 경기도 김동연 지사, 미국 샌디에이고 시장 등 경제사절단 만나 바이오·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 교류협력 방안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샌디에이고(San Diego)시 토드 글로리아(Todd Gloria) 시장 등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38명과 만나 경기도-샌디에이고시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샌디에이고시에서 경기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도담소에서 토드 글로리아 시장과 노라 바르가스(Nora Vargas) 의장 등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을 만나 "샌디에이고가 기후 대응, 재생에너지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바이오 산업 강세 지역으로 경기도 바이오산업

의 중심인 시흥시와 좋은 파트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한국 최대 지자체로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라며 "반도체 부가가치의 83%가 경기도에서 생산되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모빌리티 등 여러 첨단산업에 강하다. 앞으로 양 지역 협력이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청년들에게 해외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샌디에이고 대학과의 교류를 제안했으며, 체육·인적교류 차원에서 샌디에이고와 경기도 내 축구팀의 친선경기 추진도 희망했다.

이에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한국은 생명과학, 청정에너지, 바이오기술 분야에 강한 샌디에이고의 파트너"라며 "경제사절단을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샌디에이고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갖게 돼 뿌듯하다"고 밝혔다. 샌디에이고시는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1,000여 개의 바이오 기업에 73만여 명이 근무하며 약 27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20년 기준)하는 미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미국 3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꼽힌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캘리포니아

의 중요 허브로, 퀄컴(Qualcomm),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Microchip Technology), 리프로그(LeapFrog Semiconductor) 등 42개의 주요 반도체 기업이 소재하고 있어 경기도와 유사한 면이 많다.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은 이날 김동연 지사에게 개인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한문서 경기도-캘리포니아주 간 통상협력 강화, 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 기후변화 협력 기회 모색 등 교류를 희망하며, 도지사의 캘리포니아주 방문 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



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만남에는 임병택 시흥시장도 함께 했다. 시흥시는 경기도 제안으로 샌디에이고시와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분야 교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 기업하기 좋은 도시

# For more success with SANGJU

더 큰 성공을 위한 선택

# 경상북도의회, 2023년 농촌일손돕기에 '구슬땀'

## 가을 수확기 인력부족에 시름하는 농가 일손보태기에 앞장서

경상북도의회는 10월 26일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송지역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나섰다.

도의회에서는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30여명이 청송군 현동면 소재의 사과 과수원에서 농장주로부터 간단한 사과 수확 방법을 설명하고 약 3,000명에 이르는 과수원 수확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농촌일손돕기에는 신효광, 임기진 청송지역 의의원도 현장을 찾아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사과수확에 동참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과수 농가 등 지역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농장주는 "요즘 같은 수확기에는 작물 관계없이 농장마다 일손이 부족한데다가 수확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모두 망치게 되어 걱정이 많았는데 경

북도의회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서 도와주니 한시를 놓을 수 있게 됐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중수 의회사무처장은, "지역의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농가들마다 일손부족을 토로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해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는 농번기마다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앞장서서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봉화군의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

봉화군의의회는 지난 18일부터 10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지난 2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주요 안건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봉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통합방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택시 기본차량 연장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를 △군립 노인요양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총 8개의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 원안 가결했다.

특히 '석포공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고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업을 강조했다.

또한 '다목적농업인교육관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이 불편함

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주요 사업장 28개소를 찾아 주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김상희 의장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으며,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의의회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덕산정수장 현장방문 시민들의 먹는 물 안전 챙긴다!

## 10.26 10:00 덕산정수장 방문, 부산시 물정책 업무보고 청취 및 정수처리공정 시설 점검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안전특별위원회는 10월 26일 오전 10시, 덕산정수장을 방문하여 부산시의 물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정수처리공정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 날 현장방문에는 박종철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과 송삼중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주요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수원 다변화 등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취·정수시설 고도화 등 부산시 물 정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산의 핵심정수시설인 덕산정수장의 정수 처리 주요 공정의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직접 점검했다.

특별위원회는 낙동강 상·하류 광역상수도 개발 및 합천 창녕 등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취수원 추가 확보 등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과

덕산정수장을 비롯한 수돗물 생산 공급시설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박종철 위원장은"먹는 물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산시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며"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부산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 용인특례시의의회 신현녀 의원,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

용인특례시의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신현녀 의원의 진행으로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용인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추진하는 조례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시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영향평가,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활성화, 친환경 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신현녀 의원은 "용인특례시의 특성에 맞는 좋은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 2050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신현녀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의원연구단체의 회원인 이윤미(간사), 유진선, 김희영, 김진석, 이교우, 황미상, 박희정 의원과 함께 지자체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개정 등 조례 정비와 2050탄소중립 실현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김병상/기자



# 대구시의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 정책 발굴에 머리맞대

## 지역 내 대기유해물질 저감방안 및 국공유지 관리 활용방안 모색

대구시의의회 의원연구단체 '미래 지속가능발전 포럼'은 10월 26일 오후 1시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소속단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미래 지속가능발전 포럼'은 대구시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지속가능 정책들을 발굴하고자 13명의 대구시의원으로부터 결성됐다.

이날 보고회는 허시영 의원이 제안한 "대구시 국공유지 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와 김원규 의원이 제안한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조사·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등 2건이다.

보고회에는 각각 연구를 맡아 진행한 송정욱 누리이엔지 대표와 양원호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의 연구진과 관

련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연구의 발표자인 송정욱 대표는 "대구시에 산재한 공유재산 현황과 이용 및 관리실태를 시중에 오픈된 토지정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대구시 전체 599,653필지 중 사유지가 29,391필지이며, 이 중에서 활용가능한 공유재산이 302필지, 미이용 공유재산이 558필지"라며, 이들 활용가능한 공유재산과 미이용 공유재산에 대한 선제적 활용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이번 연구를 제안한 허시영 의원은 "연구용역기관이 제안한 선제적 활용방안 중에서 활용가능 공유재산의 재산가치 제고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의

성과 공공시설 확보 등을 통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지 내 공유재산의 유상매각을 통해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방지 재원외에 활용하자는 제안"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연구의 발표자인 양원호 교수는 "산업단지 주변의 악취 등 대기유해물질 조사를 위해 10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시행했고, 조사 결과, 실내는 기준 이하로 양호하고, 실외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며, 지자체 조례 신설 등 악취사업장 민원발생 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구를 제안한 김원규 의원은 "최근 공단지역의 제지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의한 대기오염 피해가 중요한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민원제기 지역의 사항을 파악하고, 악취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 소통창구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전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용역들은 대구시의 미이용 및 저이용 공유재산에 대한 선제적 활용전략 모색과 최근 빗발치는 악취민원에 시의회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나온 연구용역기관의 제안과 단체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현가능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 임성경 청송초년책임보좌: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포로 12길 9-19 로얄힐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기교육, 인성교육에서 답을 찾다 경기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용 사례 공유회

교육공동체의 경기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천 사례 공유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인성교육 실천 역량 강화와 학생의 기본 인성 함양을 위해 '경기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용 사례 공유회'를 31일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성장단계별 인성교육을 위해 경기인성교육 교재 6종을 개발해 현장에 보급했다. 이번 공유회는 경기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공유회는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까지 북부청사에서 진행하며, 초등교육전담사, 유·초·중·고 교원 100여 명이 참여한다.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GO3'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공유회에서는 인성교육 이야기로 풀어보는 음악공연을 시작으로 1부 ▲ 경기인성교육 정책 안내 ▲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육자료 설명회 ▲ 유치원·돌봄·초등·중등 인성교육 프로그램 적용 사례를 안내한다. 유치원은 인성 덕목을 중심으로 놀이와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그림책, 노래, 미술, 놀이 중심의 인성교육 활동과 자료집을 공유한다. 초등은 발달 단계에 맞는 101가지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를 안내하고, 중등은 덕목 관련 타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적용 사례를 발표한다. 2부는 4가지 분야 인성교육 실천 사례 및 전략 공유 시간으로 ▲(교육연구회) 사람의 5가지 언어를 통한 학교·학급교육과정 설계와 실행 ▲

(교육과정 연계) 인성 그득 교실 속 인성교육 ▲(학생동아리) 우분트 인성사랑 동아리 ▲(가정 연계) 부모님 칭찬 일기, 방과후 별분 등 가정 연계 인성교육 ▲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이 진행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교육공동체가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수업으로 연결돼 학생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용 경기인성교육 교재와 지도서 6종을 개발해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현장 응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6회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 찾아 우수기업 시상 및 전시장 라운딩 진행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을 비롯하여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 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이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26회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 2023)' 현장을 찾아 우수기업 시상 및 전시장 라운딩을 진행했다. 이른 아침부터 현장을 찾은 위원회는 전시회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G-FAIR KOREA 우수기업 어워즈'에 선정된 20개 기업에 상장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역 기업들의 홍보 부스를 찾아가 제품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역 기업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도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제26회를 쌓아온 지폐어 코리아의 저력과 활약을 기대하고, 적극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남경순 부의장과 홍원길 의원 등도 축사를 통해 이전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행사가 오늘은 활력을 되찾았다고 언급하며, 수상한 기업에 축하하고 지폐어 코리아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제26회를 맞이한 지폐어 코리아 2023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전문 종합전시회로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550여 개 기업이 참가하여 생활·뷰티·주방용품, 의료건강, 식품, 우수제품관 등 6개 주제로 640개 부스가 운영됐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책현장 찾아 지역현안 논의 통해 도민과 소통·공감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주요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7일 고양시 인제교육원에서 '일산 테크노밸리 및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도민과의 소통·공감! 2023년 지역현안 정책투어'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책투어는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곤 부위원장, 백현중·유영두·이택수·김태형·명재성·이선구·임창휘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정원근 고양사업단장으로부터 '일산 테크노밸리 및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경기도와 고양시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 주민 등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북부지역의 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미래 자족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2019년 고양시 대화동, 법곡동 일원에 지정됐으며 사업비 8,493억을 들여 2026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고양시 원흥동, 용두동 일원에 2020

년 지정되어 약 239만평의 규모, 계획인구 86,222명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날, 유영일 위원장은 "고양창릉지구 군 이전부지 토양오염 정화문제와 자족용지확대"와 "일산 테크노밸리 장항수로 수질 악화문제,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위원(국민의힘, 고양8)은 "판교에 비해 20년 늦게 지난 26일

년 지정되어 약 239만평의 규모, 계획인구 86,222명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날, 유영일 위원장은 "고양창릉지구 군 이전부지 토양오염 정화문제와 자족용지확대"와 "일산 테크노밸리 장항수로 수질 악화문제,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위원(국민의힘, 고양8)은 "판교에 비해 20년 늦게 지난 26일

노력해 줄 것"과 "자족용지 확대와 자족도시의 실현"을 강조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민선8기 정책 목표중 하나인 경기북부지역 개발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사비 등 재정적 문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고양시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관석 경기주택도시공사 균형발전본부장은 "사업추진에 따른 어려운 부분들이 오늘 많이 논의된 것 같다"며,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애로사항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고양시 창릉기업비상대책위원회 문해동 위원장도 참석하여 "창릉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되지 않고, 기업유치를 통해 자족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참여

신미숙 도의원, 화성시 기업의 사기 진작과 격려위해 공정무역 축제 포트나잇 참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축제(이하, "포트나잇")의 개막식에 참석하여 개막 축하 인사를 전하고 행사에 참석한 화성시 소재 기업들을 격려했다. 신미숙 의원은 포트나잇 개막식 축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소비와 생산을 통해 세상은 한층 진일보하며 의미 있는 사회가 된다"라는 공정무역에 관한 생각을 밝히며, "우리는 빈곤과 환경파괴 등의 문제 해결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였으며, 우리의 가치적 소비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 지역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음에 가슴이 따뜻해진다"라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이날 공정무역 포트나잇에는 영태

경제부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와 개막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8년부터 경기도에서 주최한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는 매년 공모를 통해 주관 지자체를 선정한다. 공정무역은 착한 소비와 생산을 목표로 포트나잇 축제를 통해 공정무역의 가치와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신미숙 의원은 같은 날 개막한 G-FAIR ("제26회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에도 방문해 전시회에 참여한 화성시 기업들을 만났다.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위한 다양한 행사들은 경기도 소재 기업을 전시, 홍보하고 경기도 기업의 사회적 가치 및 국내외 수출 활로를 찾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안심통학버스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 간담회 개최

용인지역 10여 개 학교 학부모 의견 수렴...내년도 통학 지원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7일 통학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인철 용인시의원, 임현수 용인시의원을 비롯한 오수정 용인안심통학버스 확대 희망 학부모모임 대표 등 용인시 10개 초·중등학교 학부모 30여 명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용인시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해 안심통학버스 안정적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전자영 의원은 안심통학버스 운영 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안심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자영 도의원은 "안심통학버스에 대한 수요가 높고 추가 배치 요구를 원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안심통학버스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

조하며 "안전한 통학의 핵심 정책인 안심통학버스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하며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종섭 의원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통학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심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부모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인철, 임현수 용인시의원 역시 "용인지역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 함께 머리 맞대고 통학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영 도의원은 용인시의원 시절 안심통학버스 운영의 법적 근거 조례인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했으며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해 통학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각각 마련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보라초, 한얼초 등 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



사업, 개솔·가현·강남 어린이공원 등 구갈동 어린이공원 3곳 환경개선 사업비 확보, 통학버스 지원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범상/기자

# 수원시,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위해 시민 의견 듣는다

## 11월 4일 오후 2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려

수원시가 '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다.

수원시는 11월 4일 오후 2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성과공유회, 2부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1부 성과공유회에서 2012년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민계획단의 성과를 발표(생활권별 계획)하고, 로블록스·마인크래프트 등을 활용해 공모·제작한 '메타버스 속 미래 수원 모습'을 상영한다. 또 도시 구성원이 직접 찍은 사진 '내가 찍은 수원'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2부 공청회에서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한 수원도시기본계획(안)을 설명하고 토론회를 열고, 시민·전문가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공청회장에서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공청회 개최 당일부터 14일간 도시계획과에 서면 및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원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겠다"며 "2024년에는 수원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범상/기자



# 안양시, 어린이집·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 재난대피훈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사전대비 가장 중요"

안양시가 이달 10일부터 27일까지 10회에 걸쳐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에서 재난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매년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및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고자 시설별 특성에 맞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실천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19년 실시 이후 훈련을 실시하지 못했으나, 올해 4년만에 재개했다.

훈련은 민방위 교육 강사, 소방교육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해당 시설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화재 등 가상의 재난을 선정해 대응·대피 과정 실습, 컨설팅 및 평가, 안전교육 순으로 진행했다.

또 훈련장소의 비상대피시설 및 방화시설 등 점검, 대피경로 확인 등도 함께 이뤄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설별로 맞춤형 실전 훈련을 확대해 안전한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신우용/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역세권 직주근접 복합 시설로 개발"

## 국토부, 24년 말까지 사업 기간 연장 승인... 청년·창업 특화시설 만든다

고양특례시가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2023. 10. 27.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 사업은 고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특징은 국비 사업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거점 공간 확충 사업, 고양시 자체 사업인 일산서구 보건소 건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조성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의 인허가, 설계, 공사 발주 및 감독 등 건설 관리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시의 수탁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착공 이후 임시 터파기 작업 중에 사업부지 내에서 인접한 철도 방



음벽의 웅벽 기초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7월 29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고양시에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 5월 31

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시는 기존 상태에서 시공 방법과 보강 공법을 추가해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요청한 상태다.

고양시는 더 이상의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사업기간이 24년 12월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공사 총괄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동사업 시행 협약에 따른 의무인 공사 재착수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일산 지역에 경제력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창업 특화 시설로 조성할 것"이라며 "센터 내의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청년특화주택으로 변경하여 창업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업무시설과 창업 지원 시설이 갖춰진 역세권 직주근접 복합 시설로 개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영기/기자

# 대학 연합축제, '안산 유니온 페스티벌' 열정과 협업 빛났다

## 관내 5개 대학 첫 연합축제, 이민군 시장 제안으로 기획

안산시 관내 5개 대학의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한곳에 모여 숨겨진 끼를 발산하고 하나 되는 꿈같은 시간이 펼쳐졌다.

안산시는 지난 28일 관내 5개 대학 첫 연합축제인 '안산 유니온 페스티벌'을 와스타디움에서 대학생과 시민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내 5개 대학의 첫 연합축제는 의미도 크지만, 총학생회를 주축으로 이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까지 맡으며 지자체와 협업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날 행사는 안산시 청년물 축제 '제1회 쇼플래닛 페스티벌'과도 연계해 먹거리를 풍성하게 운영하고 공방 체험 등 다채로운 부스를 마련해 지역 청년과도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대학생, 시민 하나 된 역동적인 축제 열기로 첫선을 보인 '안산 유니온 페스티벌'은 관내 5개 대학(서울예대·신안산대·안산대·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한양대 에리카)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행사인 만큼 활기차고 역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5개 대학 축구대항전 ▲5개 대학 락 페스타 ▲기념식 ▲아티스트 축하공연 ▲피날레 불꽃놀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대학별 홍보·체험 부스, 재학생 푸드존, 정책 홍보부스 등 청년과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행사 기념식에서는 이민군 시장과 안산시 홍보대사인 배우 이학주, 축제추진단이 축포와 함께 '시민을 안다! 시민이 산다!'라는 응원 퍼포먼스를 보내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안산시 홍보대사 배우 이학주는 "의미 있는 행사에 초대받아 영광"이라며 "대학 축제에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뜨거운 에너지와 열정을 선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5개 대학 축구대항전은 치열한 접전 끝에 한양대 에리카가 우수, 안산대학교가 준우승의 영광을 차지했고, 대학생들의 재능을 뽐낸 락 페스타는 밴드 부문에서 서울예대 골목대장팀이, 보컬 부문에서 안산대 OPUS팀이, 댄스 부문에서 한양대 에리카 만취팀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축제의 마지막은 인기 가수 윤하를 비롯해 기리보이, 우아(WOO!AH!)의 축하공연으로 흥을 더했고, 화려한 불꽃놀이로 토요일의 밤을 수놓았다.

이번 축제에 참여한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학생은 "중앙동이나 고잔신도시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을 보면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5개 대학이 함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축제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 기쁘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학교는 달라도 한 마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길"

그간 5개 대학의 총학생회 및 체육·문화 관련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학 연합축제추진단은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안산시 첫 대학 연합축제인 '안산 유니온 페스티벌'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등 축제 준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 최종 회의에는 이민군 시장도 참석해 추진단과 함께 하는 기념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유니온 리그, 유니온 스타 등 학교별 최종 참여 인원 확인 ▲축제추진단 주요 역할 등 추진 상황에 대한 최종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박세원 대학 연합 축제추진단장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기획하는 첫 대학 연합축제였던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며 "각각의 개성을 지닌 5개 대학이 시와 협업을 기반해 멋진 축제로 진행할 수 있어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박 추진단장은 이어 "이러한 연합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함께 축제를 진행해 활발한 교류의 끈을 이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이들의 의미 있는 첫 도전을 응원하며 장소제공은 물론, 행정 지원에 힘을 쏟았다.

이민군 안산시장은 "대학이 함께 연합해 이번 페스티벌을 직접 준비하고 개최한 것 자체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함께하는 홀로일 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이 망설임보다 시작하는 것, 의문보다 도전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느낄 수 있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군 시장 "내년부터 통합 축제 기획... 시민참여 확대"

안산시는 지난 5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여름 마라톤 대회와 연계한 대부분도축제(9월), 가을 김홍도 축제(10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10월)에 이어 이번 첫 대학 연합축제까지 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취임 이후 관내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행사를 제안한 이민군 안산시장은 이번 축제에 대해서도 가치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이민군 시장은 "힘들 수도 있던 첫 도전이지만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연합해 감동과 가치를 담은 축제 현장이 펼쳐졌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성남시, 핼러윈데이·수능일 인파 운집 대비 '인파사고예방단' 운영

## 신흥역·모란역·야탑역 주변과 상가 지역, 서현역 로데오거리 31일까지 집중관리

성남시는 핼러윈데이와 수능력시험 종료 후 인파 운집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파사고예방단'을 구성하여 27일부터 선제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성남시는 신흥역을 비롯해 모란역과 야탑역 주변 및 상가 지역과 서현역 로데오 거리 등 인파가 운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해 27일부터 31일까지 인파 운집 집중관리에 들어간 데 이어 다음달 16일 수학능력 시험일도 자정까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상황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인파 운집 예상 지역을 현장 예찰하고 위험 요소 등을 점검하며 실시간 인파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내 CCTV 등을

통해 인파 운집 현황을 모니터링해 운집 발생 시, 현장 근무자에게 위치 전파하여 실시간 점검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한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운집 상황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 조치와 상황을 전파하여 인파 운집 현장을 통제하여 신속히 합동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행동 요령과 현장 통제 내용 등을 신속히 전달하여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철저한 사전 예방 및 안전관리를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화성시, 2023년 경기도 교통분야 우수 시군 평가 '우수' 선정



화성시가 2023년 경기도 교통분야 우수 시군 평가에서 A그룹 '우수' 시군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통분야 우수 시군 평가'는 우수 교통정책을 발굴하고 확산해 시민에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 기준을 교통일반, 교통안전, 택시행정, 대중교통, 교통정보 등 5개 분야 18개 항목 32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수 시군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화성시는 교통안전과 교통정보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 항목에서는 법정 대수의 162%인 68대를 운영하고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2024년 7월으로 예정된 경기도 광역이동센터 통합운영에 따라 자체 배차 할 수 있는 바우처택시를 증차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교통분야 우수 시군 선정에 힘입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하남시, 'Stage 하남! 2023 굿바이 특별공연'으로 대미 장식

하남시가 'Stage 하남! 2023 굿바이 특별공연'으로 2023년 '스테이지 하남'의 대미를 장식한다.

'스테이지 하남'은 하남시가 지역 내 부족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미사권역, 신장권역, 감일권역, 위례권역 4개소의 버스킹 거점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연 관람을 통해 시민 소통·참여형 공연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시는 27일 "'Stage 하남! 2023 굿바이 특별공연'이 29일 오후 5시 30분 미사호수공원 계단광장에서 'Stage 하남! 멈추지 않습니다'를 주제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공연은 ▲미사중학교 30인조 오케스트라의 '호수 감성 콘서트' ▲리듬체조팀 리듬연우의 '리듬은 가을 바람을 타고' ▲뮤지컬 갈라쇼 도노도노의 '단풍 열정 속으로' ▲NK 치어리딩 팀의 '힘내라! 하남시민!!' 공연으로 2023년 '스테이지 하남' 마지막 공연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이어 2024년 '스테이지 하남'은 지역 내 거점 발굴을 이어가며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자율참여형 버스킹을 추진하고, 다양한 종류의 특별 공연을 모색하는 등 다채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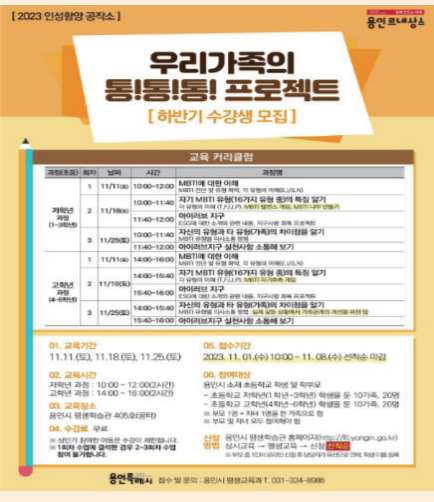
이현재 하남시장은 "2023년 한 해 동안 '스테이지 하남'을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보답해 드리겠다"며 "공민 문화를 활성화시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하남시를 젊고 활기찬 분위기로 조성해 외부 관광객도 많이 찾는 문화예술도시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 용인특례시, 초등학생 자녀 가정 대상 '가정인성교육' 프로그램 마련

###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20가족 선착순 모집...MBTI 진단 활용한 가족 공감대 형성 방법 교육



용인특례시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 구성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인성교육 프로그램 '우리가족의 통!통!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MBTI 진단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성향을 파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의 저학년과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고학년으로

나뉘 준비한 프로그램은 다음 달 11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첫 번째 과정에서는 MBTI 진단 및 유형 파악과 각 유형을 이해하는 시간이 진행된다.

두 번째 과정에서는 저학년의 경우 MBTI 균형 게임과 MBTI 나무 만들기, 고학년은 MBTI 자기 추측 게임을 통해 16가지 유형의 특징을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일상에서 환경

을 지키는 '지구사랑 회복 프로젝트' 실천 방법을 배운다.

세 번째 과정에서는 MBTI 유형별 의사소통 방법과 실제 갈등 상황에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 MBTI 검사를 바탕으로 자녀의 성향을 이해하고, 성격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방을 위한 관계 개선 방법을 모색한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용인특례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부모 1인과 자녀 1인을 한 팀으로 보고 저학년과 고학년 각각 10개 가정을 선착순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가족들이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등학교 자녀의 올바른 교육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가정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현장 시장실 운영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0월 27일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현장 시장실'을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날 진행된 현장 시장실에서는 복지관 예산 관련 사항, 주차장 확대 건의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현장 시장실에 찾아온 한 시민은 "시에서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지관을 찾는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지원이 축소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탁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김동근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재조정 중에 있으나 어르신들이 복

지관을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너무 열려마시고 앞으로 더 언제든지 편하게 현장 시장실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현장 시장실은 지난 1년간 매주 주민센터 및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8월부터는 관내 공공기관을 순회하며 시민들과 일대 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살기 좋은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최만식/기자



### 김경희 이천시시장, 간부공무원과 자활기업 '장터분식'에서 오찬 진행

김경희 이천시장이 이천시청 간부 공무원과 함께 자활기업 '장터분식'을 방문해 오찬을 진행하며 장터분식 대표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해 조합 또는 사업자 형태로 창업하는 것으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활사업 참여자 스스로 자립해 기업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터분식은 2019년 9월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시작해 4년 만에 6명의 구성원이 관고동 장터거리에 자활기업으로 창업했다.

이번 창업을 축하하기 위해 김경희

이천시청과 간부 공무원들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점심 식사를 진행해 장터분식을 홍보하고 격려하는 계기가 됐다.

장터분식 대표자와 종사자들은 "우리 장터분식이 지역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창업을 하게 되어 기쁘다. 좋은 재료와 신메뉴 개발로 앞으로도 발전하는 장터분식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장터분식의 희망찬 도전을 축하드린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 광명시, 2023년 가족추적활동 [GPS] 성료



경기도 광명시, (재)광명시청소년재단이 주최하는 광명시청소년수련관 2023년 가족추적활동 [GPS]가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재)광명시청소년재단 광명시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열리는 2023년

가족추적활동은 광명시 내 명소들을 알리고, 가족들이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가족추적활동 [GPS] 프로그램은 Gwangmyeong Point Spot의 약자로 광명시의 주요 관광지, 역사 유

적지 등 총 14개 포스트를 찾고, 방문하여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주요 포스트로는 △구름산 산림욕장 △도덕산 공원 △목감천 △현충근린공원 △안양천 △도덕산 야생화단지 △광명동굴 △영모재 △안터생태공원 △새빛공원 △충현역사공원 △기형도문학관 △한내천 △광명시청소년수련관으로 구성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광명시에 살고있지만 안가본 곳들이 있었다, 우리동네에도 좋은 곳들이 많아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나들이 다니기 좋은 날씨에 가족들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뜻깊었다. 앞으로도 청소년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용민/기자

경쟁의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동해안 청정해역! 안전한 우리 수산물!

# 우리 수산물

## 안심하고 드세요!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 전남도, 동절기 앞 긴급복지지원 국비 17억 추가

### 실직·질병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긴급 생계비 등 신속 지원

전남도는 동절기에 더욱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 보호하기 위해 국비 17억 원을 추가 확보해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긴급복지 사업으로 1만 7천 가구에 135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2억(31%) 늘어난 규모다.

이에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국비 1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97억 원의 사업비로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는 162만 원, 주거비는 시 지역 43만 원, 군 지

역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외 부가급여로 연료비(10월~3월),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기준은 4인 기준 405만 원 이하,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1억 5천 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곽영호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동절기를 앞두고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및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전남도가 운영 중인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120번)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박종배/기자



# 제9회 순천 낙안읍성 전국 국악대전 개최

순천시는 순천 낙안읍성에서 다음 달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국악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순천 낙안읍성 전국 국악대전은 동편제의 거장 국창 송만갑 선생님의 판소리를 계승하고, 국내 국악 신인을 발굴·육성하는 권위 있는 국악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일은 예선, 5일은 본선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순천시가 주최하고, (사)낙안읍성판소리보존회가 주관한다. 경연 분야는 판소리와 남도민요이며, 경연은 명창부, 신인부, 고등부, 초·중등부, 단체부 등 총 5개 부문으로 펼쳐진다.

본 대회 명창부 대상은 국회의장상(상금 300만 원), 신인부 대상은 전라남도지사상(상금 100만 원), 고등부 대상은 교육부장관상(상금 100만 원), 초·중등부 대상은 전라남도교육감상(상금 50만 원), 단체부 대상은 순천시장상(상금 100만 원) 등으로 총 상금은 1천440만 원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조선의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보존된 순천 낙안읍성에서 전국 국악대전이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며, "전국에서 찾아주시는 국악인들이 경연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뽐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양남 (사)낙안읍성판소리보존회 대표는 "이번 경연을 통해 전국 국악인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순천 낙안읍성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국악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국악대전 참가 신청은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순천시 누리집과 국악신문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낙안읍성판소리보존회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승준/기자



# 함평군, 한국농촌지도자전라남도연합회 한마음대회 성료

### 함평에서 울려 퍼진 '대도약 전남 농업' 다짐

전남 함평군이 지난 26일 함평자동차극장에서 한국농촌지도자전라남도연합회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행사는 매년 도에서 개최됐으나 올해부터 시·군 개최가 확정돼 첫 번째 개최지로 함평군이 선정됐으며 이상의 함평군수,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강종만 영광군수와 농촌지도자 22개 시·군의 2,5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슬기찬 농촌지도자!'라는 주제로 농촌지도자의 선도적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식전행사, 비전퍼포먼스, 전통문화 경연(용마루 틀기), 농업기술 경진,

지역 농특산물 전시, 회원 활동 사진전 등이 진행됐다.

또한 함평군 연합회의 김동만 회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이계권 회원과 전재홍 농촌지도사가 도지사 표창을, 노건갑 회원이 중앙회장 표창을 수여했으며, 함평군농업기술센터의 박은하 농촌지도관이 박대조 중앙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축사에서 "이번 대회가 시·군 단위로 함평에서 첫 개최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6차 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져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받고 남원여행 함께해요

### 숙박,음식,쇼핑 등 각종할인혜택 제공

남원시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란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QR코드를 활용해 지역 내 관광지, 음식점, 카페, 체험시설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남원시 할인 혜택 대상 사업장은 함파우소리체험관, 화인당, 관광택시 등 주요 관광지와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 카페, 기념품 판매점

등 총 19개소이다. 시는 관광공사와 연계해 관광을 매개로 여행객들의 지역 방문 횟수와 체류기간을 늘려 지역의 활기를 되찾고 생활인구 확대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소유자라면 누구나 공사 여행 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발급받을 수 있고, 자세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남출/기자



# 끝까지 풍성한 '2023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 주말 밤 피날레

### 28일 '나주학생항일운동 현대무용', 전통춤 '나주목관부부' 29일 근대무용 퍼포먼스, 오페라 갈라 '나주여 승리하라'

'2023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 나주통합축제가 10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아 끝까지 풍성한 문화·예술공연으로 열흘간 대장정을 마친다.

이번 주말에는 마한,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과 근대 나주의 역사를 주제로 창작한 문화·예술 공연이 줄줄이 예정돼있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영산강둔치체육공원 축제주무대에서 '나주학생 항일운동 현대무용' 공연이, 6시 30분부터 전통춤 연회 '나주목관부부' 공연이 펼쳐진다.

현대무용 공연은 '나주, 그 시간의 기억'을 주제로 광주학생항일운동의 단초가 됐던 1929년 10월 30일 옛 나주역에서 있었던 나주학생항일운동 당시 강인하고 처연했던 기억들을 '몸의 대서사

시'로 표현한다.

나주항일학생운동가들의 뜨거웠던 열망, 그들이 염원했던 삶의 의미를 총 3부(생명-숨-향)에 걸쳐 춤의 언어로 지역의 메시지를 전한다.

'전통춤·연회, 나주목 관부부'는 조선시대 나주목에 외국 사신이나 귀빈이 찾아와 나주목에서 축전이 있었을 때 손님들에게 선보였던 신청 예인들의 전통춤 공연을 재현한다.

'인트로-초무-화관무-승전무-구름검무-나주의 복소리-클로징' 등 총 7편으로 구성된 공연은 사자탈, 풍물, 삼현육각, 무용 등이 결합된 전통 예술 국악공연의 진수를 보여준다.

축제 폐막일인 29일엔 근대무용 퍼포먼스 '나주시대 판소홀'과 오페라 갈라

'나주여 승리하라', 나주시립합창·국악단의 폐막 공연이 예정돼있다.

29일 오후 2시 30분부터 펼쳐질 근대무용 퍼포먼스는 일제강점기 뼈아픈 역사 속에서 근대문물이 들어오며 호황기를 누렸던 영산포의 재도약을 기원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영산포 근대거리와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 새롭게 변신한 근대가요, 춤이 만나 아름답고 활기차게 재생되는 영산포의 비전을 제시한다.

같은 날 4시 30분 선보일 오페라 갈라는 성공적인 축제 폐막을 축하하며 이태리 초창 가수, 한국을 대표하는 오페라 가수들이 총출연한다.

'희망의 나라로', '넬라 판타지아', '지금 이 순간', '아베 마리아', '축제의 노래'

등 대중적인 오페라곡을 시민과 함께 부르면서 행복했던 열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오후 6시 30분 시민의 문화 향유에 앞장서는 나주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이 축제 대미를 장식한다. 공연 이후에는 축제 개막 후 이를 간 펼쳐졌던 영산강 불꽃쇼가 다시 한 번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가을 낭만이 가득한 10월의 마지막 주말 밤을 나주축제장에서 보내시길 바란다"며 "열흘간 축제를 통해 선보여졌던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들이 나주를 대표하는 고유의 문화 콘텐츠로 축적, 활용해가겠다"고 전했다.

김영만/기자



# 강진군,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받아

강진군은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공식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공시이동이 있는 1,298필지로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및 강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부동산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윤호/기자



# 전북도, 아름답고 다양한 건축물 한눈에 들여다 본다!

### 제2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려

전북도는 '새로운 출발 전북별자치도! 건축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건축 전문가·학생은 물론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제'를 10월 3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북도청에서 연다고 밝혔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제는 도내 우수 건축물을 발굴해 시상하고 건축의 공공적 가치 실현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문화제에서는 건축문화상 수상작 전시를 비롯해 어린이집 그리기 수상작, 한·중·일 국제건축 작품전, 한국 기획전시, 서울시 건축문화제 특별교류전, 공공건축 특별전, 건축도로인 작품전 전

시가 동시에 진행된다. 개막식인 31일에는 건축문화상 시상식이 진행되며, 사용승인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분야 '국립세만금 간척박물관', 일반분야 '남원시 월락동 다가구주택', 학생부문 'UPCYCLING PARK'을 비롯해 입상한 설계자, 건축주에게 각각 상장, 기념동판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은 전라북도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건축의 공공성, 예술성 등 가치를 구현하며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받는다. 도민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가상현실(VR) 체험이 있으며, 개막식 다음날인 11월 1일에는 설계사례 세미나와 '새만금에 플로팅 건

축제안'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 학술 발표 등이 마련돼 건축을 한층 더 가깝고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직 설계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가에게 건축 진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코너도 운영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건축은 단순히 건물만 짓는 행위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한옥처럼 국가와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건축의 미학을 담아 내는 것이다"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더욱 풍요롭게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건축문화제를 통해 도민들이 건축의 매력을 느끼는 계기가 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구례 꽃채운국화사랑회, 2023 구례 꽃채운 국화 전시회 성료

전남 구례군은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구)제일교회 일원에서 열린 '2023 꽃채운 국화전시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약 4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행사장인 (구)제일교회 일원은 골목길 정비와 국화 전시를 통해 아름다운 골목길로 재탄생했다. 전시회는 끝났지만, 국화 전시는 11월 12일까지 계속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주민들이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기획하고 추진한 주

민 주도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국화전시회를 주최한 '꽃채운 국화사랑회' 회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스스로 회비를 부담하여 국화를 재배하고 작품을 만들어 전시했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이 만들어져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구례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 완도군, 도서 지역 '찾아가는 청년 아카데미' 운영

### 인문학 강의 및 문화·취미 활동 지원 프로그램 진행

완도군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도서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군은 완도 청년센터 '완생'을 거점으로 청년 역량 강화, 취·창업 교육, 원데이 클래스 등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찾아가는 청년 아카데미'는 완도 청년센터 이용이 어렵고, 도서 지역이라 상대적으로 문화·취미 활동 기회가 적은 금일읍과 노화읍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내달 15일에는 고금면 청년들을 찾아가길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명사 특강으로 '서상일 훈장의 지역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과

자극심,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가족 소품 만들기', '가을맞이 플라워 테라피' 등이 운영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함께 소통하며 작품을 만드는 동안 잠시나마 삶의 활력을 찾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청년들이 희망하는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취·창업 교육, 공동체 활동, 문화복지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영울/기자



# 목포시, 조위 상승에 따른 해수 침수방지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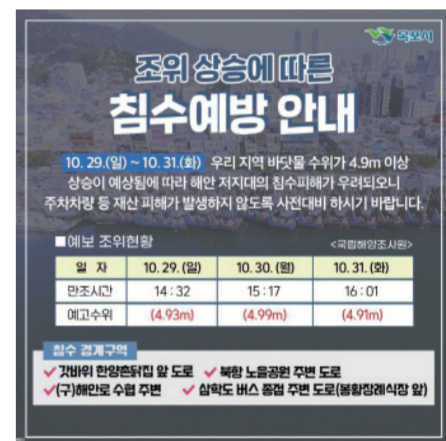
### 29일부터 31일 사이 바닷물 수위 상승 예상

목포시는 대조기인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오후 1시 ~ 6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4.9m 이상 (조석표상 10/30 최고 4.99m) 상승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안저지대에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침수 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 주차는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

상 조고 4.90m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 신재생에너지의 최적지 진도군, 해상풍력 발전사 간담회 개최

### 해상풍력 추진현황, 협력방안 공유와 소통의 장 마련



진도군이 25일 군청 회의실에서 해상풍력 발전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확대와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허가업체와 계획기 설치 업체 등의 관련자 35명이 참석했다.

현재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세계적인 기업 간 사용 연료를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겠다는 RE100을 추진 중에 있다.

진도군은 해상풍속이 7.5m/s 사업성이 매우 뛰어나고 풍력, 태양광, 조류 등의 신재생에너지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해상풍력 발전사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공존하고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발전사 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수용성 공동 대응과 해상교통 안전진단, 부족한 전력계 연결을 위해 '한전 공동 접속 설비 先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해상풍력 발전사 협의체 구성은 발전시간 상호 협력방안과 지역상생 방안 모색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과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해상풍력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보성군, 제19회 벌교꼬막축제 성료!

### 수산물 지리적 표시 제1호 보성벌교꼬막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려

보성군은 지난 27일 '청정 갯벌과 꼬막! 그리고 문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개막된 '제19회 벌교꼬막축제'가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 3일간의 대장정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벌교꼬막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벌교꼬막축제는 수산물 지리적 표시 제1호인 보성벌교꼬막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며 동시에 보성의 자랑거리인 벌교꼬막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다.

사흘간 벌교읍 천변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축제는 제철을 맞이한 싱싱하고 쫄깃한 꼬막의 풍미를 맛보며,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행사 등이 펼쳐져 연일 북새통을 이루며 큰 인기를 끌었다. 벌교꼬막축제는 ▲길놀이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꼬막 비빔밥 1,000인분 만들기, ▲꼬막 노래자랑, ▲꼬막 체험(꼬막 던지기, 꼬막 까기, 꼬막 무게 맞추기, 꼬막 경매), ▲꼬막 요리 시식, ▲벌교꼬막 잡기 체험(황금 꼬막을 잡아라, 바퀴달린 널배 타기 경주) 등 벌교꼬막축제의 정체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축제 개막을 알리는 대북 퍼포먼스와 지역 청년들로 이루어진 댄스

팀 공연으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트로트부터 발라드·국악·성악까지 다양한 음악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이 펼쳐져 듣는 재미와 보는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했다.

또한 벌교꼬막축제와 연계해 진행된 태백산맥문학관 15주년 기념행사에는 태백산맥 소설 조정래 작가를 초빙해 애독자들과 북콘서트를 갖고, 소설 태백산맥의 주무대인 벌교 태백산맥문학 거리를 걸으며 문학기행을 진행해 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축제장을 방문 한 김철우 보성군수는 "선선한 가을 날씨에 꼬막의 풍미를 맛보니, 추억과 낭만이 절로 쌓인다."라며 "축제장을 찾아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벌교꼬막이 더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진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전국 꼬막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산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벌교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 지리적 표시 제1호 보성벌교꼬막과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로 지정된 보성벌배어업 등 갯벌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역사와 전통을 보유하고 있다. 최원영/기자



# 신안군 '24년산 첫 '햇김' 위판 시작

### '세계자연유산 신안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겨울철 대표 별미 신안 김'

신안군은 지난 26일 겨울철 대표 수산물이자 별미인 '24년산 첫'햇김' 위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판은 압해읍 송공리 물길 위판장에서 3어가에서 약 8톤을 거래, 11백만 원의 판매액을 올렸으며 28일부터 본격적인 위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올해 처음 생산된 물길은 조생종 품종인 잇바디들김으로 곱창처럼 길면서 구불구불하다 하여 일명 '곱창김'이라 불리고 있다.

맛과 향은 만생종인 일반 돌김에 비해 식감이 좋고 풍미가 뛰어나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좋으며,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광활한 청정갯벌에서 지주항목을 세워 밭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김발을 햇빛에 자동 노출하는 옛 전통방식의 지주식 김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시설, 생산하고 있다. 또한, 신안군에서 생산된 물길은 맛과

향이 뛰어나 전남 해남 및 충남 서천, 전북 부안 등 인근 시군으로 대량 판매되고 있으며 품질이 우수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올해는 전년에 비해 김양식이 자랄 수 있는 수온과 해양여건이 좋아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양식하는 모든 어가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김 산업 육성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군 김양식어장은 9,139ha로, 작년 550여가가 참여하여 물길 59,500톤을 생산, 540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 김영진/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 윤석열 대통령에게 '징비록' 선물

## 임진왜란 상황 묘사한 징비록... 전쟁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중앙집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위해 경북도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징비록'을 선물했다.

'징비록'은 서해 류성룡 선생이 임진왜란(1592~1598년) 동안 있었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 책으로, 전쟁이 발발한 원인과 조정의 실책들을 기록해 후세에 길이 남길 반성이 담겨있다.

이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책을 선물하며 "징비록은 부끄러운 역사를 이겨내고 오늘을 있게 한 위대한 기록"이라며,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지방 관료가 한양에서 파견되다 보니 주인의식이 없었고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관료가 먼저 도망가니 지방이 무너지고 불과 20일 만에 수도 한양이 함락됐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는 지방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지

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에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유림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병산서원은 징비록을 집필한 류성룡 선생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 의미를 더했다.

'전통문화유산에서 찾는 지혜와 교훈'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퇴계 서원 운동의 정신 구현, 갈등과 반목 극복을 위한 선비정신, 국민 행복을 위한 인성교육의 확대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전통에 대한 자부심, 국가발전의 초석"이라고 방명록을 남겼으며, 이철우 지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통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예술가와 동행하는 부산오페라하우스·부산콘서트홀 논의

## 부산시의회, 문화시설의 주인공은 부산의 예술가가 되어야



지난 25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의원(행정문화위원회·동구1) 주재로 '부산광역시 문화시설 운영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6년 개관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부산콘서트홀의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사)부산음악협회 권성은 회장과 김소형, 양승범 부회장, (사)부산오페라단체인협회 장진규 회

장과, 그레이스즈 부회장, 김지호 부산성악가협회 회장, 경성대학교 김원명 교수 참석하여 두 공연장의 개관 이후 부산 예술가의 역할과 예술가들이 더욱 활발히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부산오페라하우스·부산콘서트홀의 개관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 음악인이 소외 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통영국제음악당 이용민대표가 참석하여 통영음악당 개관 이전 음악제를 차별화하여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음악당 운영으로 연결하게 된 점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사하구2, 국민의힘)과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두 공연 시설의 개관으로 청년 예술가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도 충분한 기

량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잘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 좌장을 맡은 강철호의원은 "부산오페라하우스·부산콘서트홀은 부산 시민이 주인이다. 우리가 남의 시설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예술가의 발판이 되고, 우리 시민이 마음껏 누리고, 교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장기적 관점의 공연 창작, 매개, 유통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분야별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화시설개관준비과 흥경과과장은 "참석자들에게 향후 운영계획을 설명하면서 세계적인 음악인의 공연은 물론 전문인력양성과 시즌제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 대구시,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동구 괴전동 2번지 일원, 104,006㎡, 2023년 10월 30일 지정·공고



대구광역시는 영남권 청소년들의 진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예정지에 대해 10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괴전동 2번지 일원 104,006㎡로써, 영남권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 청소년진로직업 체험수련원 건립의 안정적인 추진과 개발 예정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 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창엽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은 영남권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지역의 지가 안정을 위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화하여 경계를 설정했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청송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자!

## 2023 아이돌보미 집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청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0월 27일 청소년수련관 실내집담회에서 청송군 소속 아이돌보미 25명의 역량 강화 및 소속감 증진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아이돌보미 집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집담회는 아이돌보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동정보와 경험사리를 공유하고 정서 함양을 위한 라탄공예품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저출산 해소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크게 기여하고 있고, 특히 아이들

보미는 군의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청송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돌봄 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은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의 3개월 이상 영아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청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 100세 이상 고령 인구 전국1위, 영양군만의 그 특별하고 행복한 삶

천혜의 자연,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고장, 영양군이 2022년 12월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100세 이상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전국 1위의 장수마을(郡)로 확인됐다.

전국 1위인 영양군의 자연적 여건은 전체 면적의 86%가 산림지역이며 해발 200~400m 산간지대로 경북에서는 해발고도가 가장 높다.

한편, 철도·4차선·고속도로가 없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육지속의 섬'으로 불린다. 그런 영향으로 영양군은 때 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청정함이 살아 있다.

사회적 여건을 보면 군내엔 돼지농장이 1곳도 없고 타 지역에 비해 축사도 많지 않아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도 찾아볼 수 없으며 어딜 가든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를 접하게 된다.

이곳에서 절반 이상의 군민들이 노년에 필요한 충분한 활동에 걸맞은 농업에 종사하며 채식 위주의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관내 115개 마을에 경로당 182개로 어르신들이 편하게 경로당을 찾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대화하는 등 다양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받고 있어 외로움이나 쓸쓸함을 전혀 느낄 시간조차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장수마을 관련 기사에서 박상철(전남대) 교수는 "지금까지는 물 좋고 공기 좋은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에

100세 장수인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지자체 차원의 노인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이 장수마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또한 "농촌지역은 도시보다 인구 자체가 적어 찾아가는 서비스 등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럼, 영양군이 100세 이상 장수마을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그 특별하고 행복한 삶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보건 분야는 대표적으로 찾아가는 '오지 마을 건강 사랑방 의료 서비스' 운영이다, 관내 20개리 오지 마을 주민에 의료장비를 탑재한 버스로 주 3회 순회 한방진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만성 및 특정 질환 전문진료를 위해 연중 원격영상진료(대구 소재 영남대학교 병원 외 3개)를 지원하고, 연 6회 안과 진료(안동성서병원 외 2개), 연 4회 통증클리닉(경북대학교병원), 월 2회 산부인과 진료와 월 1회 행복병원(안동의료원)도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복지분야에서는 군내 182개 경로당을 '시니어 놀이공간'으로 이용하고, 냉·난방비, 쌀, 부식비 등을 지원하여 부담 없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농한기에는 요가, 노래, 댄스 교실 등의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기 요양 등급이나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200천 원) 지원과 경로당에 임석테이블과 의자를 보급하여 편한 경로당 생활을 즐기게 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50세 이상 전 국민 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천 원)과 만 65세 이상 수급자 및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1인당 90천 원)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군은 1,000여 명의 독거 노인에게 안부전화, 생활교육, 안전 확인 등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원분야에서는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서비스를 빼놓을 수 없다. 사소한 고장으로 관내 업체조차 수지타산을 이유로 출장을 꺼리는 생활 속 불편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은 전구나 수도꼭지 교체, 방충망 수리, 방향 뽕뽕이 설치

등 간단한 가사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엔 재료비 10만 원까지 무상으로 해 주고 있다.

이 서비스는 2019년 첫 시행 후 해를 거듭할수록 영양군의 효자 시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다양한 '효자촌' 행정이 노인들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 이런 측면에서 영양군이야말로 명실상부한 100세 이상 장수마을 전국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앞으로 영양군이 '전국 1위 장수마을'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맑은 공기와 청정 자연을 잘 보존하고, 현재와 같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잘 유지한다면 귀촌 및 휴양관광객이 몰려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은 물론 살고 싶은 지역으로 급부상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윤근수/기자







# 문화도 체험하고 우정도 쌓고...영등포구-영암군 '어린이 문화체험단' 교류

초등학생 4~6학년, 각 15명 파견...주요 명소 견학, 단체 활동 등

영등포구 '어린이 문화체험단'이 10월 27~28일, 국내 친선도시인 전남 영암군을 찾아 문화체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어린이 문화체험단은 친선도시 어린이들이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친선도시의 주요 명소를 견학하고 함께 어울리는 단체 활동 등도 진행한다.



이번 친선도시 교류 활동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4년만에 재개됐다. 영등포구와 영암군은 지역 내 초등학교 4~6학년, 각 15명을 친선도시에 파견해 상호 우호를 증진한다. 먼저 10월 27일~28일, 영등포구 어린이 문화체험단이 영암군을 방문했다. 1일차에는 ▲F1경주장 견학 및 카트 체험 ▲한복 체험 ▲전통다식 만들기, 2일차에는 ▲새실마을 가드닝 체험 ▲국화 축제 방문 ▲곤충 박물관 견학이 진행됐다.

특히 어린이 문화체험단은 남도의 대가 마련된다. 친선도시 어린이들은 각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문화를 체험하고 돈독한 우정도 쌓을 수 있다. 문화체험단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처음 가보는 영암에서 다양한 체험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 너무 좋았다"라며 "조만간 영등포에 영암군 친구들이 오면 함께 활동하면서 영등포를 자세히 알려주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구는 안전한 문화체험 활동을 위해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철저한 안전 교육도 진행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친선도시 어린이들이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다른 지역의 문화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친선도시 간 상호 우호를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향신/기자

# 30년간 불법 점유됐던 성동구 마장 먹자골목, 11월부터 안심상가에서 영업개시

화재가 난 마장동 먹자골목 업소들이 인근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으로 이전

서울 성동구는 화재가 난 마장동 먹자골목 업소들을 안심상가로 이전하고 마칩내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 지난 2022년 3월 마장동 먹자골목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무허가 건물로 꽂 들어찬 골목은 항상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 화재는 골목 중간에 위치한 업소의 전기시설에서 시작됐다.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는 샌드위치 판넬로 이어진 바로 옆 업소로 순식간에 번져 33개 업소 중 11곳을 태웠다. 이곳에 먹자골목이 생긴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될 즈음이다. 당시 정부는 마장동에 있던 소 도축장 일대를 정리하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서울시 주도로 청계천 인근 업소들을 현 성동구 마장동 437번지 일대로 이주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이 하나 둘 발생했고 현재의 마장동 먹자골목으로 이어진 것이다.

올해 8월 시설 매입과 이전공기를 마쳤다. 마장청계플랫폼 525는 이제 성동구 안심상가로 탈바꿈했다. 올해 11월부터 11곳 음식점이 안심상가로 이전하여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5%로 5년 계약 후 재계약할 수 있다. 성동구는 남은 점포와 당장 이전을 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안심상가 증축 등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여 이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먹자골목이 완전히 이전하면 현 부지는 도서관과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마장먹자골목 정비는 35년이 넘도록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한 채 영업해 온 업소들을 대체 상가를 확보하여 평화적으로 이전시키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전하는 먹자골목 상인들이 조기에 정착하여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마장축산물시장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화재 이후 먹자골목 일대 시설 노후와 안전문제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무허가 업소 정비 요구가 이어졌고, 먹자골목 상인들은 이주 과정의 정당성과 생존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성동구에서는 물리적 충돌 없이 주민과 먹자골목 상인이 상생하는 방안으로 대체 상가를 확보하여 마장축산물시장 인근을 물색했으나 마땅한 대체 상가를 찾을 수 없었다.

강성원/기자



# 서대문구, 외국인 유학생 등에 긍정언론홍보 표창

나눔과 봉사로 지역의 긍정 이미지 확산시킨 우수 단체와 개인 시상

서대문구는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 긍정언론홍보 우수 단체 관계자와 개인 등 1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지난달 열린 '2023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 때 각종 유학생들이 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홍보한 싱가포르 국적의 글래디스(Wong Hui Chee Gladys) 연세대 외국인유학생회 회장이 표창을 받아 많은 박수를 받았다. 아울러 이 축제 중앙기획단을 구성하고 기획과 실무 전반에 참여한 연세대 김가현(기획단장), 변예원(부기획단장) 씨와 이화여대 김민지(부스 기획팀장), 박수현(홍보제작팀장) 씨, 경기대 윤석환(현장관리팀장) 씨도 표창을 받았다.

이들의 활약으로 대학생과 청년, 외국인 유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낸 결과, 축제 기간(9. 14.~17.) 신촌 연세로의 유동 인구가 평상시보다 20.1% 증가한 53만 명을 기록했고 축제의 다양한 콘텐츠가 여러 언론매체에 소개됐다. 지난달 '제6회 전주시 한옥마을배 전국 여성 축구대회'에서 출전한 15팀 가운데 우승을 차지하며 지역의 위상을 높인 서대문여성축구단 임삼수 단장과 김우석 감독, 한미애 코치, 한진숙 코치도 표창을 받았다. 서대문여성축구단(회장 이유진)은 단체 부문에서도 긍정언론홍보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함께 수상한 서대문구새마을부녀회는 자연 순환과 지역 내 나눔 문

화 확산을 위해 지난달 나눔행복장터를 개최하고 수익금을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기부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암도 지난달 추석 명절을 맞아 나박 물김치 500인분을 만들고 이를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서대문구는 나눔과 봉사 등으로 언론을 통해 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확산시킨 우수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이성현 구청장은 "이웃에 대한 애정과 지역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이 '행복 100%' 서대문'의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만식/기자



# 영양 들머디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에 톡톡 영양으로 오세요



# ZOOM

들머디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신내위와 남이로, 삼의계곡, 수해계곡, 본신계곡, 침범공원, 축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서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겸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발해보호공원, 반달불이전단지, 영양영생대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공룡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본재수석야생화전시관



# 서초구 방배2동, "웰다잉(well-dying)으로 아름다운 이별 준비하세요"

남은 삶을 잘 설계하기 위한 기반과 노년기 삶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 기회 마련

서울 서초구 방배2동은 이달 27일 50여명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웰다잉(well-dying) 특강을 개최했다. 웰다잉(well-dying)은 죽을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특강은 대한웰다잉협회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나의 고백(GO BACK), 내 삶의 발자국 여행」 병풍자서전 만들기, 「나의 해피엔딩 노트」 작성 등 웰다잉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방배2동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3,672명(65세 이상 인구의 5.6%)으로 서초구에서 6번째로 어

르신이 많은 동으로, 웰다잉(well-dying) 강의를 통해 남은 삶을 잘 준비하여 노년기 고독함·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강의에 참여한 어르신은 "막연하기만 했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충민 방배2동장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준비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고립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 금천구 시흥3동, 만수무강 기원하며.. '행복사진 찰칵'

시흥3동 복지협의체 주관, 봉사단체 '따뜻한 시선'에서 사진 재능기부



금천구는 10월 29일 시흥3동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에서 저소득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행복사진 촬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사진 촬영행사'는 시흥3동 복지협의체가 추천한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봉사단체 '따뜻한 시선'이 어르신에게 화장을 해주고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 촬영과 액자를 후원하는 '따뜻한 시선'은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에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시흥3동에는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따뜻한 사랑의 온정을 전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박모 어르신(여, 82

세)은 "그동안 바쁘고 비용이 부담돼 행복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시흥3동 복지협의체 위원분들과 애정을 갖고 촬영해주신 '따뜻한 시선'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행복사진 촬영이 어르신들께 아름다운 순간을 추억할 수 있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향신/기자



# 강원도 '2023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선정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내화수림대 조성지, 우수조림지로 입상”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청에서 선정하는 '2023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에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마을 앞산에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대규모로 조성한 내화수림대 사업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는 산림청에서 현지여건 및 산림경영 목표를 적합한 적지적수 식재 등 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산림청 산하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실사를 거치는 심사 제도로, 2023년도 우수내화수림대 조성지와 천연경관신지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총 6개 기관인 산림청 산하의 국유림관리소 4개소와 충

청남도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이 선정됐다.

화천군이 조성한 내화수림대는 상서면 다목리 산79번지 일원 산자락 하단부에 산불에 강한 내화성수종을 긴 띠형태로 식재하여 산불발생 시 민가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우수조림지의 선정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조림 성공률을 높일 뿐 아니라,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 원주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우수상

원주시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정선군 백두대간생태수목원에서 열린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하며, 2022년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강원지회에서 주관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8개 팀이 참여하여 경사가 급한 실제 산림지역 400m 구간에 산불기계화시스템, 간이수조, 호스 등의 장비를 사용해 최종 1시간에 진화용수 20리터를 담수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시군별 기량을 판별했다.

원주시는 지난 봄부터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전까지 봉화산 일원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왔다.

또한, 대회 이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진화작업 능력과 공동 대응 역량을 높여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이 시작된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고의 산불진화능력을 가진 진화대를 필두로 산불로부터 원주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 충남도, “내포에서 듣는 서양미술사 특강 신청하세요”

**2023 청년역사특강**

## 내포에서 듣는 파리 감상

프랑스 정부 공인 도슨트가 들려주는 루브르박물관 & 오르세미술관

**강연자** : 프랑스 정부 공인 도슨트, 루브르박물관 & 오르세미술관

**특강내용**

- 10월 31일 화요일 19:00
- 충남도청 문화교육관 2층 (충청남도 충무로 55(대전로 577))
- 18세 이상
- 충남도청 누리집 등록
- 입장료 : 250석 선착순 (사전 QR 접수 후 신청)
- 문의 : 041-860-1111 / 070-4186-2462

## 도, 프랑스 정부 공인 도슨트 초청 ‘내포에서 듣는 파리 감상’ 주제 강연

충남도는 31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내포에서 듣는 파리 감상’을 주제로 서양미술사 특강을 진행한다. 30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충남청년센터가 주관한 이번 특강은 프랑스 정부 공인 도슨트(문화예술 해설사)인 류은혜 씨가 강연을 맡았다.

강연은 오후 7시부터 루브르 박물관의 대표 작품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비롯해 오르세 미술관을 대표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등을 통해 서양미술사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번 강연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다이나믹충남청년 누리집에서 2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조원태 도청년정책관은 “깊어가는 가을, 우리에게 친숙한 그림을 통해 서양미술사를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갖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박경귀 시장 “아산시, 대한민국의 ‘온천 수도’ 되겠다”

## ‘아산 헬스케어 동반성장 포럼’ 참석...‘온천도시 아산의 비전’ 발표

박경귀 아산시장은 28일 “아트밸리 아산이 대한민국 ‘온천 수도’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선언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온양관광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아산 헬스케어 동반성장 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 제1호 법정 온천 도시로 지정된 아산시가 온천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선도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제 온천은 목욕과 휴양을 넘어 회복과 치유의 기능으로 고도화돼야 한다. 이를 위한 과학적인 연구와 효능의 검증이 필요하다. 또 의료기관에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는 것처럼, 온천을 통한 치료에도 일정액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고·온양·아산온천 등 아산시의 3대 온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각각 보양 온천인 ‘도고온천’은 치매·피부·근골격계 등 치유 프로그램 개발, ‘아산온천’에서는 온천과 재활 기기를 접목한 헬스케어 프로그램 개발, ‘온양온천’에서는 온천의 의료적 효능을 검증하는 코호트 구축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목욕’의 온천에서 ‘치유·힐링’의 온천으로 온천 산

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지역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과정 개설, 온천 치유 전문 양성 교재 개발 등을 통해 온천 산업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시장의 발표 이후 이어진 포럼은 ‘온천도시 아산의 헬스케어 산업 발전 전략’을 주제로, 송호연 순천향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온천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는 이병권 건강대 산학협력단장(재활과 스파), 홍재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디지털헬스케어연구 부문장(스파환경에서 디지털헬스케어 구현을 위한 웨어러블 센서), 권종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기능화기술센터장(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박수강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슬립테크와 스파테크의 융합), 이새빈 순천향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 책임연구원(마이크로바이옴과 헬스케어), 공석경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의료용평형가센터장(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인허가 지원 체계 구축) 등이 참여했다.

김원호/기자

# 충북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에 맞춤형 인프라 구축

## 2024년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 공모사업 선정

충북도는 2024년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5억원(국비 12억6천, 지방비 12억6천)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염 및 한파 등과 같은 기상 이변에 대처 능력이 부족한 기후취약계층·지역을 대상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충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전통시장 3개소에 쿨링포그 설치, 폭염 노출·취약성이 높은 유휴 공간 1개소에 인공 차양막 설치 조성, 경로당 50개소에 쿨루프 시공, 결빙 취약지 5개소에 열선포장 설치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에는 폭설 및 결빙에 취약한 오르막길, 계단 등 보행로에 열

선이나 발열설유를 설치하는 사업 유형이 시범적으로 추가된다.

환경부는 결빙취약지 개선 효과분석을 통해 관련 사업 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겨울철 한파·결빙에 취약한 골목길 등에서 어린이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낙상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지원사업이 취약계층에게 기후위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2023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내 쿨링포그 및 스마트 침터를 설치했다.

고정화/기자



# 태백문화예술회관 11월 기획공연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얼이썩다' 공연

태백시는 문화예술회관 11월 기획공연으로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얼이썩다』가 오는 11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에 태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국·공립 우수공연’의 일환으로 (재)춘천문화재단이 제작에 참여하고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가 공연하는 작품이다.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는 이날치의 곡 ‘범내려온다’ 안무로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한몸에 받았으며,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으로 조회수 3억부를 돌파했다. 최근 콜드플레이, 구찌 등 장르를 넘어 파격적인 행보와 활발한 작품활동으로 세계적인 명성과 대중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현대무용계의 글로벌 스타이다.

이번 공연 ‘얼이썩다’는 ‘어리석다’의 ‘얼이 썩었다’는 부정적 의미를 ‘얼이 썩다’는 긍정적 의미로 새롭게 해석해 앰비규어스만의 무한한 상상력과 독창성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근본적인 콘셉트는 그대로이며, 이번 공연에서는

**태백문화예술회관 11월 기획공연**

##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얼이썩다'

2023. 11. 17. 금 오후 7시 (702)

관람료 10000원 / 초등학생이상 관람가

티켓은 10.31(화) 09:00 - 문화사랑의 시간으로 11.1. (수) 10:00 일반공연 판매처 우안아트홀, 태백문화예술회관(033-550-2781)

태백시

**2023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

온천도시 아산의 헬스케어 산업 발전 전략

**2023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

온천도시 아산의 헬스케어 산업 발전 전략



#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 활용 전보내신서 제출

## 인사청탁 근절과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

경북교육청은 2024년 1월 1일 자 정기인사부터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서 제출 방식을 기존 공문 제출에서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6월 21일 4세대 지능형 나이스의 개통에 발맞추어 나이스 전보 메뉴와 프로세스를 분석해 경북교육청 고유의 인사 특수성과 실정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전보 시스템은 지방공무원 인사 기록과 연계해 작성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개인의 종합적인 이력과 전보 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전보내신서의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4일에는 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으며, 31일에는 각 기관(학교 포함) 인사 담당자와 전보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보내신서 작성 연수를 실시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지능형 나이스를 통한 전보 시스템 구축으로 외부의 인사청탁을 근절하고, 인사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청렴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양교육지원청, “문향의 얼”을 이어 인성의 꽃을 피우다!

## 영양교육지원청, 지역특색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바르고 건강한 인성 함양을 위하여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역특색이 반영된 실천·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문향의 얼 잇기’를 운영하고 있다.

‘문향의 얼 잇기’는 영양 출신 문인들의 얼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지역사회 유관 기관 및 인적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양문인협회의 시창작교실, 시 낭송가가 들려주는 시낭송 교실, 증가음식디미학교의 전통음식 체험, 장계항 문화체험교육원을 활용한 다도 및 전통예절 학교 등으로 구성되어 관내 초·중학교의 희망을 받아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낭송 교실에 참여한 영양중초 학생은 “시 필사와 낭송법을 배워 친구들과 앞에서 발표를 하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또 학생들에게 다도 및 전통예절을 강의하는 장계항 선향회 강사는 “짧은 시간이지만 다도와 전통예절을 통해 학생들의 걸음걸이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면 뿌듯함을 느낀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유희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체제로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

고 문향의 얼을 이어 정서적 안정을 얻고 자신과 타인을 더욱 소중히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지능형 과학실 ON 플랫폼 활용에 적극 나서

## 첨단 기술 활용이 가능한 신나는 과학탐구 지원



경북교육청은 ‘지능형 과학실 ON 플랫폼’을 활용한 초·중·고 과학 수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고 30일(월) 밝혔다.

‘지능형 과학실 ON’은 과학 수업에서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학습 콘텐츠, 최신 분석 도구 등을 제공하는 과학 탐구 활동 지원 온라인 플랫폼이다.

제4차 과학교육 종합계획에 따라 지능형 과학실과 연계해 학생 중심의 실제적 과학탐구 활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과학실 ON은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했다.

특히 플랫폼에는 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활용해 온라인 탐구 활동이 가능하고 실감형·시뮬레이션 콘텐츠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활용한 과학 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학교관리자계정 승인을 지원하는 등 각급 학교 수업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21일 2차례에 걸쳐 초·중등 교사 58명을 대상으로 ‘지능형 과학실 ON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해 해당 플랫폼에서 수업안을 작성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한용 창의인재과장은 “지능형 과학실 ON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공간을 초월한 과학탐구와 실험이 가능하며, 학생들의 분석적 사고와 협업 능력, 데이터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다”며 “해당 플랫폼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덕교육지원청, 2023 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영덕 해파랑 가을 음악회 개최



영덕교육지원청은 10월 24일 영덕교육지원청 정원에서 경상북도교육감님과 관외 초청 내빈과 영덕 관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유관기관, 지역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영덕 해파랑 가을 음악회’를 개최했다.

영덕 해파랑 가을 음악회는 문화 예술 공연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마음 건강을 회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원황초등학교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특별무대를 위해 초청된 오케스트라, 국악, 댄스, 성악팀이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특히 공연 중 진행된 영덕교육지원청 경관 조형점등식으로 아름다운 조명이 공연의 감성과 멋을 더했다.

영덕교육지원청 윤인환 교육장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하시는 교원에게는 치

유와 심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에게는 서로 공감하며 예술적 소양을 고양시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음악회에 참석한 분들이 예술적 역량을 키우고 교육공동체가 힐링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장문화/기자

# 부산교육청, 현장의 수업·평가 역량 키울 선도 교원 양성

## 31일 ‘교육 과정·수업·평가를 잇다’ 연수 운영 참가자들,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강사로 나설 예정

부산광역시교육청은 31일 오후 3시 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초등 교육과정, 수업, 평가 선도 교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수업·평가를 잇다’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주도적 이해를 돕고, 학생 주도성을 기반으로 깊이 있는 학습과 과정 중심 평가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연수에는 임소영 감전초 교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홍지희 연포초 교사가 ‘개정 교육과정 기반 수업·평가’에 대해 각각 강의한다.

이어 참가자들은 교육지원청별 찾아가는 연수 운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갖는다.

참가자들은 연수 후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강사로 나설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과정·수업·평가 일관화 실현을 통한 교수·학습 의지 강화, 자발적·협력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교 문화 조성에 이번 연수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허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수업·평가 설계 역량과 실천 의지를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우리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주체 간 협력을 통해 희망 부산교육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주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권리교육 실시

## 27일 20곳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110여명 참석해 교육



경주시는 지난 27일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양육시설 등 20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무요원 110여 명이 참석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전문 강사는 아동에 대한 인식변화,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권리의 현실, 아동권리의 책임과 역할, 아동권리 보호 실천 등 아동권리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배경혜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복지 현장 최일선에서의 아동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존중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 고양교육지원청, '고양꿈돌이 한마당' 창의성이 피어나는 융합 교육의 새로운 장을 펼쳤다

고양교육지원청이 주최 주관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제28회 고양꿈돌이 한마당’이 28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고양꿈돌이 한마당’은 올해로 28번째를 맞는 과학·정보·수학·환경 융합 주제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및 50여 명의 학교장의 축하를 받으며 학생, 교원, 학부모 등 시민 약 10,000여 명이 참여하여 성대하게 운영됐다.

‘꿈꾸고 도전하는 리더, 융합으로 만드는 미래’라는 슬로건하에 꿈·도전·리더·융합·미래 5가지 테마를 기반으로 한 이번 행사는 체험, 교육, 전시, 공연, 이벤트 마당이 동시에 진행됐다.

주요초등학교 DCC의 댄스 공연과 가나초 전병호 교사의 과학 미술, 문촌초등학교 합창으로 개막식의 문을 연 이번 행사는 고효순 교육장님의 인사와 도의원, 시의원의 축사로 이어졌다.

학교 동아리와 교사연구회, EBS,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SW·AI교육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함께한 81개 체험 부스는 과학, 수학, 정보, 환경 구역으로 나뉘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하며 체험을 이끌어가는 학생과 체험하려는 학생들이



어우러져 배움의 열정에 불을 지폈다. 이외에도 과학 탐구 대회 우수 작품 전시와 전 공주대학교 육근철 명예교수의 특강, 디지털 드론 특강이 펼쳐지며 학생·학부모·교원·시민이 함께 창의 융합 교육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려웠던 과학·수학·정보·환경 교과를 체험해 원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

내년에 열릴 고양꿈돌이 한마당이 기대된다”라고 한목소리로 소감을 전했다.

고효순 교육장은 “고양꿈돌이 한마당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융합 체험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축적하고 꿈을 키워가는 소중한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미래 교육의 변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영기/기자

# 전북교육청, 전주 에코시티 이전 고등학교 찾는다

## 전주지역 평준화 국·공립 일반고 대상, 에코시티로 이전·재배치 희망학교 공개모집

전라북도교육청은 전주 에코시티로 이전할 고등학교를 공개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주 에코시티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학령 인구가 이동함에 따라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나, 전주 지역은 평준화 일반고가 단일학교로 운영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존 학교를 전주 에코시티로 이전·재배치해 학생 배치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했다.

특히 대상학교 선정 방법도 그동안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의 자발적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학교 이전에 가장 큰 난관인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 동창회 등 학교관계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 1일부터 24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그 후 별도의 선정위원회에서 대상학교를 선정, 12월중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회와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찬반투표 결과 투표 응답자의 과반수 찬성 시 이전·재배치 학교로 최종 확정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현재 전주 에코시티는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인근 고등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균형 잡힌 학생 배치와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2028년 3월 이전·재배치를 목표로 공모 절차와 이전대상학교 선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철/기자



# 2023년도 상수도 문경읍 현장민원실 운영

## 상수도 현장의 최전선에서 펼쳐지는 현장민원처리에 앞장서

문경시 상수도사업소는 10월 26일에 문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수도 관련 시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처리하는 상수도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 상수도민원실은 민원처리, 누수탐사, 고장수리, 시설점검, 수질검사, 계량기 교체·점검 6개반 15명의 직원으로 구성했으며, 누수탐사 1건, 보호통 교체 14건, 수질검사 1건, 총 16건을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누적 처리 건수는 96건이 된다.

또한 문경시에 2025 아시아소프트테니스 선수권 대회 유치와 문경시 3대 친

절운동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김순섭 상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 읍면 현장민원실 운영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귀담아듣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상수도 현장의 최전선에서 펼쳐지는 현장민원처리에 앞으로도 계속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음 상수도 읍면 현장민원실은 가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상수도 생활민원은 가은읍 행정복지센터 또는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 하남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시민의 생명과 재난안전 최우선'

하남시가 하남시청 본관 2층 상황실과 미사경정공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시는 “27일 실시된 이번 훈련은 하남소방서 긴급구조종합훈련과 연계하여 진행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하남경찰서,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유관기관 240여 명의 인력이 참여해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발생'이라는 가상 상황을 중심으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남시청은 ▲재난 현장과 지대본 상황실 실시간 통합 연계 훈련 도입 ▲ 문제해결형 토론훈련으로 지원반 대응 역량 강화 ▲ 재난 상황 발생 대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협력 대응 체계 구축 및 점검 등으로 내실 있는 훈련을 진행했다.

또한, 하남소방서는 ▲선착 소방대

초기 화재진압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현장 대응력 강화 ▲단계별 대응체계 및 지휘권 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상황전파 및 보고, 관계기관 소통 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적극 활용해 지휘부 연계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훈련의 전 과정에 국민체험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해 시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염규진 안전정책과장은 “실제상황과 유사한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훈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하남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하남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 파주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총력...유관기관과 공조체계 구축



## 11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파주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가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돼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 더욱이 산행 인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파주시는 산림휴양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판단 및 진화 체계를 구축, 소방·경찰·군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 대응 태세 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산물진화 헬기의 계도 비행을 주 2회 실시해 초기 진화 태세를 확립하고, 산물전문예방진화대 44명을 거점지역 6개소에 전진 배치해 산물 취

약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산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 진화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특히, 올 10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당직 근무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읍면에서 병행 운영하던 산물 근무 또한 피해 면적 5헥타르(ha) 이상 중형산물 발생 시에만 자체 비상연락망 가동과 주민 대피 및 보호 대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재난 시에만 운영하도록 행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단풍을 감상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물 발생 위험이 커진다”라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산물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 '안전 또 안전'...영등포구, 핼러윈데이 앞두고 안전관리 '집중'

## CCTV 집중 모니터링, 불법 노점과 적치물 단속, 위험 광고물과 옥외간판 점검



영등포구가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다중인파 지역의 CCTV 집중 모니터링과 안전점검을 실시해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주요 변화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카페와 음식점이 자리잡고 있는 좁은 골목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구는 '핼러윈데이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27일부터 31일까지 각 분야별 안전관리에 집중한다.

먼저 CCTV관제센터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문래동3가 일대 맛집 거리를 중심으로 24시간 CCTV를 집중 모니터링하며 인파 밀집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더현대서울, 타임스퀘어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 발생 시 재난상황실, 경찰서, 소방서와 함께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며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구는 현장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한다. 사고 발생 시 통행로를 막아 피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불법 노점과 무단 적치물,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옥외간판이나 불법 광고물도 정비한다. 또한 골목으로 튀어 나온 음식점, 커피숍의 테라스나 부스를 살펴피난 시 병목 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점검한다. 이외에도 옥상(루프탑)이 있는 음식점 27개소를 대상으로 난간 설치 여부, 화재예방 시설 구비 여부, 출입문 개방 상태 등도 확인한다.

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핼러윈데이 전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또한 27일에는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영등포경찰서, 영등포소방서, 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문래동 일대 합동점검도 실시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소방 차량과 구조 인력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통행로 확보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올해 핼러윈데이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안전점검에 집중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앞으로 5일간 통합관제센터의 비상근무체제 유지와 집중 모니터링,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인파 밀집 상황에 빈틈없이 대비하여 구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 음성군, 무각본 합동소방훈련 실시

음성군은 지난 30일 군청 광장에서 유사시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무각본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직원들로 구성된 자위소방대원, 민원인, 음성소방서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재난 대응 상황이 펼쳐졌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으로 실시된 이번 합동소방훈련은 사전에 발화시간, 장소가 예고하지 않고 화재 최초발견자의 신고부터 상황전파, 소화기 사용, 옥내소화전 작동, 대피 유도, 인명구조, 부상자 병원 이송 등의 상황을 무각본 훈련으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청사 건물에서 예기치

않은 화재 발생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지휘반, 진압반, 대피유도반, 구조구급반 등 직원 자위소방대의 화재 초기 진압과 화재 발생에 대비한 종합훈련으로 진행됐다.

이창현 회계과장은 “오늘 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 및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무리한 초기 진화 활동보다 대피 중심의 행동 요령에 중점을 두고 긴급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화재 대응능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각종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고 연 2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해 소방 교육 및 훈련에 힘쓰고 있다.

최만식/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축제



제17회  
**청송사과축제**

2023. 11. 1.(수) ~ 11. 5.(일)  
청송읍 용전천 현비암 일원

주최 / 주관  
후원

청송군 / 청송군축제추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경상북도, 청송군의회, 청송경찰서, 청송소방서, 청송교육지원청,  
청송군관내농협, (사)청송사과협회, K-water 청송권지사, 한국수력원자력청송양수발전소, 청송문화원 등